

V+Incubator \_ 크로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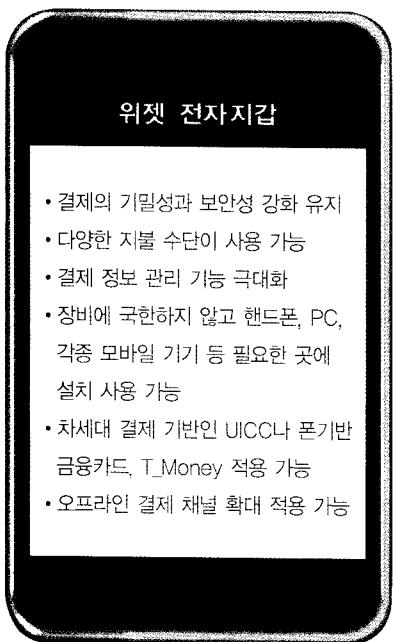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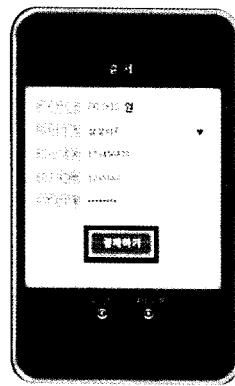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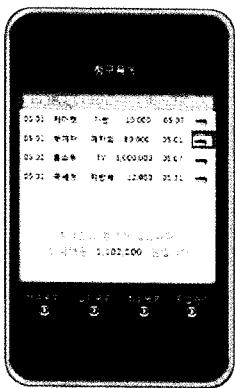
불안하고 불편한 결제, '위젯전자지갑'이 해결한다

## 크로스원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전화 결제와 인터넷 결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편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마포 비즈니스센터 입주 1인 벤처기업 크로스원의 박정철 대표가 자신 있게 내놓은 위젯전자지갑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글\_정유경·사진\_김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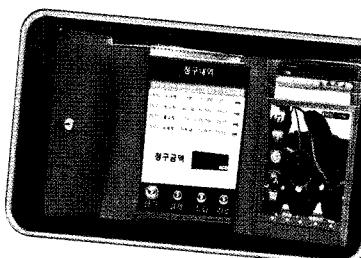




### 철통 보안, 위젯 전자지갑

자신이 잘 보관하고 있는 지갑에서 돈을 주거나 카드를 꺼내 물건 값을 지불하면 결제 정보는 새어 나갈 염려가 없다. 그러나 개인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자결제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적잖게 발생했기 때문에 불안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로스원의 박정철 대표가 시작하게 된 것이 ‘위젯전자지갑’ 사업이다. 위젯전자지갑은 결제 주체의 개념을 달리한다. 자신이 위젯전자지갑을 다운로드했거나 탑재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IPTV 등에 물건 구매를 요청한다면 판매자 쪽에서 구매품 청구서를 자신의 위젯전자지갑 ID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자신은 휴대폰을 꺼내 위젯전자지갑 안의 청구서를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정한 후 결제를 한다.

“지금까지는 판매자의 창구로 직접 가서 내 정보를 입력해야 결제를 할 수 있었지만, 위젯전자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내 정보는 판매자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로 청구서를 받듯이 청구 받은 금액을 전자지갑 안에서 꺼내서 자신이 편한 결제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결제 내용 확인이 쉽고 편리한 위젯전자지갑

위젯전자지갑의 장점은 철저한 보안성에서 그치지 않는다. 박정철 대표는 위젯의 편리함에 주목했다. 휴대폰이나 PC를 사용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돋는 애플리케이션 위젯은 쉽고 빠르게 전자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개의 카드를 쓰는 등 결제 수단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제 내용을 한눈에 보거나 정리하기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위젯전자지갑을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줄어듭니다.” 결제 수단은 달라도 위젯전자지갑이라는 한 개의 창구만을 이용하게 되므로 그 동안의 구매 목록을 검색해 언제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위젯전자지갑이 가계부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셈이다.

###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진리를 알고 시작한 사업

8개월 전 위젯전자지갑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 크로스원이라는 기업을 설립한 박정철 대표는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인의 자질을 갖췄다. 10여 년 동안 IT업계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 노하우와 관련 지식을 익혔고, 직장을 그만둔 후 적지 않은 방황도 해봤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유통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영업과 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일까. 박 대표는 위젯전자지갑 사업을 준비하면서 끊임없는 시장 조사를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밀그림을 그려 나갔다. 1,000건 가량의 관련된 특허를 분석하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관련 자료는 닥치는 대로 모아 연구를 해왔다. 좋은 아이템이나 기술만을 가지고 시작한 대부분의 벤처기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위젯전자지갑이 많은 이들의 결제 수단이 되면 자신이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돋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히는 박정철 대표.

현재 그는 위젯전자지갑을 유통시킬 방법을 찾으며 상용화의 시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그가 야심차게 내놓은 위젯전자지갑이 결제자의 불안감을 잠재울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그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